

정겨운 소식 실은 102.1MHz...한가위 고려인 마을 경사났네

고려인마을 라디오 방송 '고려FM'의 추석맞이

음악·맛집·수다방 등 한국어·러시아어 번갈아가며 전해
진행 서둘러도 뜨거운 반응...고려인 사회 소통의 장으로

“오늘 첫 소식은 청취자들이 모두 기다리는 ‘고려인가족 추석 한마당 축제’ 소식입니다. 축제는 추석날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곡동 제2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되는데요. 다양한 공연, 흥겨운 놀이, 고려인 음식, 무엇보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일 찾아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라디오 방송국(고려FM)은 어느 방송국처럼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오전 10시30분 이날 첫 방송 프로그램인 ‘고려인 뉴스’의 토크뉴스는 4월 앞으로 다가온 추석날 행사를 청취자들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고려인마을 주민 박세주(50)씨가 한국어로 한 꼭지의 뉴스를 청취자에게 전하면, 우크라이나 출신의 안드레이(33)씨가 러시아어로 같은 내용을 다시 말했다. 우리말이 서툰 고려인에게는 러시아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어깨를 맞닿고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고려FM의 전략이다. 짙막한 다섯 꼭지의 뉴스를 전하는데도 20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낮 12시 ‘땡’하고 오전 방송이 끝나자 4평짜리 방송룸 안에는 냉기가 흘렀다. 이

날 오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냉정한 자기 반성과 평가의 시간이다. “대본을 너무 빨리 읽어 오늘도 시간이 5분 남아버렸다.”, “시간이 남을 경우를 대비해 뉴스를 몇 쪽지 더 준비해야 한다.”, “블랭크(blank·빈 시간) 길면 방송사고 난 줄 알고 청취자들이 조마조마 한다.” 등등

개국 전부터 고려FM 식구들에게 라디오 진행 방법을 지도해온 전문강사도 “방송은 방송이다. 청취자가 모든 걸 듣고 있던 점 명심하고 준비, 또 준비해야 한다”고 진행자와 스태프들에게 주의를 줬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석 특집 방송 편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추석 당일인 15일은 방송국 인근 공원에서 열리는 고려인가족 한마당 축제 현장을 연결하는 코너를 준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게스트로 근로자, 주부, 청소년 등 다양한 고려인들을 불러모아 명절을 맞이한 소감과 그동안의 고국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시간도 갖기로 뜻을 모았다.

고려인들의 공동체 라디오 고려FM은 6개월간의 개국 준비를 거쳐 지난 6월 첫 전파를 쏘았다. 정식 주파수를 배정받아 외국인(동포)을 청취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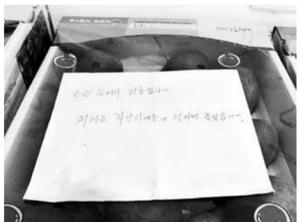
1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자리 잡은 고려인 라디오방송국에서 방송 진행자들이 고려인마을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전파를 발사한 고려인라디오(FM 102.1MHz)는 월곡동, 산정동, 우산동, 하남동에 사는 3000여명의 고려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음악, 각종 사연을 전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일 라디오 방송이어서 개국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송출 범위는 방송국 기점으로 5km인 미니FM으로, 월곡동·산정동·우산동·하남동에 거주하는 3000여명의 고려인들과 이웃 주민들이 주요 청취자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 소식을 전하고 고려인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이용되는 방송 특성상 고려인들이 주축이

돼 방송국을 꾸려간다. 월~금요일까지 매주 오전·오후 2시간 30분씩 5시간 방송하는 고려FM의 주요 프로그램은 뉴스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고려인 주부 철라(41)씨가 진행하는 ‘고려인 엄마 수다방’, 러시아 전통음악과 최신가요를 들려주는 ‘뮤지타임’, 고려인 파

워블로거로 알려진 디아나(여·37)씨가 광주의 맛집과 관광명소를 전해주는 ‘디아나의 광주이야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려인들이 진행하는 ‘10대세상, 세대 토크’ 등 청취자 연령대를 겨냥해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호응도 얻고 있다. 고려인뉴스 코너를 맡은 안드레이씨는 “과연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졌다. 그런데 막상 방송을 해내보니 부족함은 있지만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 고려인 사회에서 반응도 뜨겁다”면서 “프로그램을 맡은 진행자, 기술지원 스태프 등 14명의 고려FM 전원이 청취자 호응에 부응하고 고려인 사회에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꼭지와 함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주민센터에 두고 간 사과 상자. (광산구 제공)



광주 동구청 주차장으로 배달된 백미. (동구 제공)

따뜻한 추석...올해도 다녀간 얼굴없는 기부천사

하남동주민센터에 사과·배 상자
동구청 주차장엔 백미 100포

한가위를 앞두고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의 잇따른 선행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매해 명절이면 잊지 않고 남모르게 선행을 펼치고 있다.

1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0시10분께 주민센터 주차장에 누군가 사과 25상자(1상자 5kg)와 배 25상자(7.5kg)를 놓고 사라졌다. 과일 상자 위에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전하면 좋겠

습니다”라고 손으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설이나 추석에 쌀과 과일 등을 하남동 주민센터에 선물하고 있다. 이번이 10번째 선물이다. 하남동주민센터 측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 50세대에 사과와 배를 전달할 계획이다. 하남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에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동구청 주차장으로 백미 100포(1포 20kg)가 배달됐다. 자신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는 복구의 한 식자재마트를 통해 쌀을 기부하면서 “이름은 밝히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겼다. 이 기부자는 지난해 추석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백미 450포를 동구청에 전달했다. 동구는 이번에 전달받은 백미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한 명의 기부자가 꾸준히 많은 양의 쌀을 기부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남 모르게 꾸준히 선행을 베푸는 기부천사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렴 광주교육 믿음에 빚금 생겨 참담”

장휘구 교육감 기자회견
학생부 부당정정 사태 사죄

장휘구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사립여고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사태와 관련,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

다”고 1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립여고 사태로 청렴 광주교육에 대한 믿음에 빚금이 생겨 참담한 심정”이라며 “광주 전체의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광주교육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일부터 23일까지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관리 권한 부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학생부 정정대상과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연계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권한과 수정횟수 등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부터 예정된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수 조사와 별도로 2년 치 생활기록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교사 윤리 연수를 연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학교 나이스 담당자 연수와 학교 교원 연수를 1회씩 확대하는 한편, 전국 대학에 협조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긴꼬리딱새 수컷(왼쪽)과 암컷 (자원활동가 박석규씨 제공)

무등산서 긴꼬리딱새 번식과정 확인

암수 한쌍·새끼 세마리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일 무등산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긴꼬리딱새 번식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등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긴꼬리딱새는 암수 한 쌍과 새끼 세 마리 모두 두 다섯 마리아. 지난 7월 새 울음소리를 따라가 그 존재가 확인됐다. 무등산사무소는 1개월여간 암수가 새끼를 기우고 새끼가 동지를 떠나 독립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한다. 여름 철새인 긴꼬리딱새는 몸길이 수컷 45cm, 암컷 18cm가량 자란다. 눈 주위가 파란색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수컷의 긴꼬리가 특징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 위기근접 종으로 분류된 희귀한 새다. 동아시아, 서부 태평양을 건너 제주도 등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며 숲 속 깊은 곳에 둥지를 틀어 좀처럼 보기 어렵다. 지난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서식이 확인된 조류는 모두 118종이다. 독수리,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조류는 이 가운데 9종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도심과 인접한 무등산에서 긴꼬리딱새가 번식한다는 것은 무등산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돈 값아라” 옛 동업자 어머니 살해

무안경찰, 도주한 40대 추적
추석을 앞두고 40대 남성이 옛 동업자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값지 않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며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옛 동업자의 부모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무안군 풍탄면 한 주택에서 흥기에 찢겼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씨의 어머니 B(여·77)씨가 흉기에 다리를 찢리고, B씨의 남편 C(78)씨가 경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D(43)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찾아와 A씨가 값지 않은 9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옛 동업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무안군 풍탄면 한 주택에서 흥기에 찢겼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씨의 어머니 B(여·77)씨가 흉기에 다리를 찢리고, B씨의 남편 C(78)씨가 경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D(43)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찾아와 A씨가 값지 않은 9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옛 동업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무안군 풍탄면 한 주택에서 흥기에 찢겼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씨의 어머니 B(여·77)씨가 흉기에 다리를 찢리고, B씨의 남편 C(78)씨가 경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D(43)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찾아와 A씨가 값지 않은 9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옛 동업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귀금속 계’ 탄 계원 집 알아내 수백만원대 훔친 50대녀

○...함께 ‘귀금속 변호사’를 하고 있는 계원이 순번이 되어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탄 사실을 알고, 집주소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54)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김모(여·49)씨의 아파트에서 18K 귀금속 세트 등 590만

오늘의 날씨

해출 06:14, 해진 18:42, 달출 16:16, 달짐 02:09

가을 늦더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9/30	보성	구름많음	16/28
목포	구름많음	21/29	순천	구름많음	18/29
여수	구름많음	20/27	영광	구름많음	18/29
나주	구름많음	17/30	진도	구름많음	19/29
완도	구름많음	20/29	전주	구름많음	18/29
구례	구름많음	15/29	군산	구름많음	19/28
강진	구름많음	18/29	남원	구름많음	16/28
해남	구름많음	17/30	홍산도	구름많음	21/26
장성	구름많음	16/29			

◇ 바다 날씨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동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동부	앞바다(동) 북~북동 1.5~2.5, 북~북동 1.5~3.0
제주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5~2.5		

◇ 물때

목포	여수
밀물 10:55, 썰물 05:01	밀물 06:22, 썰물 00:44
23:55, 16:47	19:13, 12:20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높음: 주의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	☁	☁	☁	☁	☁	☁
20/29	19/30	18/26	17/27	17/27	17/27	17/27

광주 중·고생 10명 중 6명 “도박 경험”

전북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아
참여연령 평균 11.4세로 낮아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지역 청소년의 도박 경험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499명(전국 1만4011명)을 대상으로 도박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0.6%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청소년 도박 경험 비율이 전북(63.3%)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2.1%다. 전남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도박 경험 비율은 50.6%로 전국 4위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경험한 도박들은 뽑기(26.1%), 기타 내기(16.5%), 스포츠

경기(12%), 카드 및 화투(10.9%), 온라인 내기(4.2) 순으로 집계됐다. 합법적인 사행 산업과 불법인터넷도박 경험비율도 각각 2%, 1.5%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반복적인 도박으로 도박중독 위험성이 높은 ‘문제군’ 비율이 제주(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로 분석됐다. 또 광주지역 중·고생의 도박 참여 연령은 11.4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12.1세)보다 0.7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7~9세 연령의 최초 도박 경험률도 19.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하는 도박’(44.9%), ‘친구나 선우배의 소개’(32.6%)를 통해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도박을 경험하면 향후 도박 중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